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령의 기쁨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7절

Tag: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살전1:4-7)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근방의 수도.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다. 부하 중 하나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내를 위하여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이름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비시디아에서 디모테를 얻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다. (요즘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흑해 남쪽 지역)그러나 어떤 일인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다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 여겨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아마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것 같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약 3

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3주간의 부흥회)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크게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과 관계된 자들이지 않나 싶다.

데살로니가에는 야손(Jason;제이슨)이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친척이다. 아마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말이나 지식으로 바울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 야손이 대신 끌려가게 되었고, 벌금을 물고 석방된 일도 있었다.

바울은 몰래 도망하여 아테네로 갔지만, 디모데는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그는 훌륭한 설교가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유명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특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터인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별한 반응**과 관계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각자 개인의 반응은 똑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다행스럽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 사랑을 귀하게

받아들였다. 비로소 영혼이 깨어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것은 동물로서의 존재가 아닌, 거룩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 깨어나는 존재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현실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옷이 남루해도 상관없다. 건강이 좋지 않고 허약한 체질이어도 상관없다. 불품이 없고, 버젓한 가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그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6절에는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표현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란 뜻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는 하다.

-또는 거듭남을 경험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부픈 꿈을 안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경쟁을 경험하고, 무지와 무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신체적인 한계와,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장벽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부여안고 고민한다. 기도한다. 공부한다.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

-처음에는 도와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허송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겨우 겨우 깨닫게 되고,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른 무엇으로 위로를 받거나, 지혜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으며,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닦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고, 신앙고백이 되기도 하며, 돌파가 되기도 한다.

-질병에는 치유가 답이고, 막힌 답에는 지혜가 답이고, 파산에는 도움이 답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다.

-여러번 돈이 없어 고생하였다. 여러번 병으로 고생하였다. 여러번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고생하였다. 여러번 편견과 무시당함과 이념 갈등으로 고생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 성령의 확신으로 견딜 수 있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임하신다. 동행하신다. 위로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안정을 유지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힘겨운 중에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게 하신다.

-각자의 형편에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가 베풀어진다. 그 모든 수고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운다.

#### \*소망의 인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다.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 현실의 고난은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찬양예배>

제목 :로마서 성경공부(1)      성경: 로마서1장

Tag: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의 목적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아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1:1-32)